

【어원 탐구】

‘화냥’의 어원과 의미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우리말은 그 어떤 언어보다 욕설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을 卑下하고 賤視하는 욕설이 유난히 많다. ‘갈보(년), 개년, 계집년, 미친년, 쌍년, 우라질 년, 잡년, 화냥(년)’ 등이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¹⁾ 이들 모두가 입에 담기 꺼려지는 심한 욕설이지만 특히 ‘화냥(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화냥(년)’에는 천박한 짓을 하는 여자라는 점 이외에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한 여자라는 特性까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화냥년’은 ‘화냥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기술되어 있으며, ‘화냥’은 ‘서방질을 하는 계집’으로 풀이되어 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外間 남자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여자를 ‘화냥’이라 하고, 그를 더욱 비하하여 ‘화냥년’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냥’이나 ‘화냥년’은 현실적으로

1) 욕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몸을 함부로 하는 천박한 여자와 관련된 단어로 ‘계명위리(행실이 단정하지 못한 여자)’, ‘논다니(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 ‘외대머리(기생이나 몸을 파는 여자)’, ‘허튼계집(정조가 없이 몸가짐이 해픈 여자)’ 등이 있다.

는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애인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여러 남자와 관계하는 음탕한 여자’라는 의미로 두루 쓰이고 있다.

그러면 이 ‘화냥’의 어원과 그 본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주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17세기의 이수광(1634)를 비롯하여 20세기 이후의 박노철(1934), 양주동(1938), 김형규(1962 : 15), 유창돈(1966, 1971 : 205), 한진건(1990 : 209-218), 심재기(1993), 홍윤표(1994), 김민수 편(1997 : 1194), 조항범(1997 : 279-281, 2001 : 236-237), 백문식(1998 : 415), 김인호(2001 : 77-78), 박재연(2003) 등으로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민간어원 설까지 결부되어 있으니, 單一 단어 치고 어원 문제에 이 정도의 관심을 받아온 단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²⁾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와 떠도는 민간어원 설을 종합하면, ‘화냥’의 어원은 (1) ‘參養’, (2) ‘幻爺’, (3) ‘還鄉’, (4) 閑良, (5) 만주어 ‘hayan’, (6) 花郎, (7) 화랑이 [覲], (8) ‘花娘’ 등으로 정리된다. 논의만큼이나 그 어원 설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화냥’에 대한 어원 설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이에 대한 어원 추적이 어려웠다는 것을 反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여러 어원 설의 대부분은 민간어원적 차원의 것이거나 음운론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할 바는 못 된다. 다만 박재연(2003)에 의해 제기된 중국어 ‘花娘’ 설은 예외이다. 박재연(2003)에서는 ‘中朝大辭典’ 편찬이 중국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우리말 단어의 어원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화냥’이 중국어 ‘花娘’에서 직접 차용된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本考는 박재연(2003)에서 제기한 ‘花娘’ 설을 인정하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세부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花娘’이라는 단어가 중

2) 물론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어원 사전이나 특정 논의에서의 단편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다만 한진건(1990 : 209-218)은 어원 사전에서의 기술이더라도 기왕의 여러 설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논의와 성격을 달리한다.

국 문헌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고, 이것이 국내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형태와 의미로 차용되었으며, 그 형태와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이것이 국어에 차용된 후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어떤 형태로 변형되고, 그 변형의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경쟁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우선 ‘花娘’이라는 단어가 중국 문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예에서 보듯 ‘花娘’은 중국의 옛 문헌에서 쉽게 발견된다.

- (1) ㄱ. 朔客大喜, 擎觴起立, 命花娘出幕, 徘徊拜客. <申胡子鬢策歌, 序文>
- ㄴ. 花娘十二能歌舞, 籍甚聲名居樂府, 荏苒其間十四年, 朝作行雲暮行雨. <花娘歌>
- ㄷ. 娼婦曰花娘 <南村輟耕錄 14>

(1ㄱ)은 당나라 시인 李賀가 쓴 ‘申胡子鬢策歌’의 序文 부분이다.³⁾ 이 시에서 ‘花娘’은 ‘妓生’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ㄴ)은 송나라 梅堯臣이 지은 ‘花娘歌’의 일부인데⁴⁾ 여기서도 ‘花娘’은 ‘妓生’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1ㄷ)은 원나라 陶宗儀 撰 ‘南村綴耕錄’의 일부이다.⁵⁾ 여기서는 ‘花娘’을 ‘娼婦’의 의미로 풀고 있다. 이렇게 보면 ‘花娘’이라는 단어는 일찍부터 중국어에서 쓰였으며, 주로 노래하고 춤추는 ‘妓生’이나 몸을 파는 ‘娼女’의

3) 이 예는 한진건(1990 : 215)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申胡子鬢策歌’에는 그 서문뿐만 아니라 본문에도 ‘花娘’이 쓰이고 있다.

4) 이 예는 한진건(1990 : 215)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5) 이 예는 박재연(2003)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南村綴耕錄’은 元代 필기 소설집이다.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말 ‘화냥’이 지니는 ‘서방 질하는 계집’이라는 의미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단어의 관련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중국어 ‘花娘’의 의미가 밝혀진 이상, 다음의 관심은 이것이 당시에 어떻게 읽혔는가 하는 점이다. ‘花娘’에 대한 唐, 宋 시대의 中古音은 [xwaniang]⁶⁾이며, 그 현대음은 [huāniáng]이다. 이 두 가지 음은 우리말 ‘화냥’과 그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미의 유사성과 아울러 발음의 유사성은 ‘화냥’이 중국어 ‘花娘’에서 왔을 가능성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옛 문헌에 ‘화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화냥’이라는 단어는 아쉽게도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중세국어 시기에 쓰이지 않았다고 속단하여 말할 수 없다. 우연하게도 문헌 예가 발견되지 않는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화냥’과 관련된 단어는 모두 근대국어 이후의 것들이다.

- (2) ㄱ. 養漢的 花娘 <역어유해 상 : 30>
 - ㄴ. 白髮에 환양 노년 年이 저문 書房호라 호고 <청구영언 57>
 - ㄷ. 부릅쓰고 대즐 왈 이 무도흔 화냥논 드르라 네 국녹지신으로 일도방빅이 <당빅전 12>
 - ㄹ. 온 동리에서 판박이 노흔 화냥년이니 한 번 화냥이나 두 번 화냥이나 남이나 내가 무엇이 다를 것이 <뽕 369>

- (3) ㄱ. 花娘 화냥이 <동문유해 상 14>
 - ㄴ. 慣嫁人 화냥이 <몽어유해보 30>
 - ㄷ. 養漢的 화냥이 <방언유석, 신부방언 35>

6) 이는 沈兼士(1976)에 근거한 것이다.

- (4) ㄱ. 이 도적 화냥년의 난 나괴 뼈아 흠뻑 도적질 호미 도티 아니흐라
 (這賊養漢生的小驢精一發做賊時不好) <박통사언해 하 : 25>
 ㄴ. 환양년 歡兩女 <한불자전 100>
 ㄷ.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냐, 이 하냥년 같으니.” 영숙의 어머니
 는 <어머니 1, 177>

- (5) ㄱ. 養漢的 화냥 <화어유초, 인품 9>
 ㄴ. 년기가 적고 싱기미 아름다오믈 인하여 저 분수 모로는 사름들은
 모다 그릇 화랑의 류로 알더라(因他年紀又輕生得又美不知他身分的人却誤認作優伶一類) <홍루몽 47 : 39>

- (6) 더 화냥이 더의 부친이 뇌횡에게 마저 중상호엿슴을 보고(那花娘見父母被雷橫打了又帶重傷) <수호지 4 : 50>(신문관 간행)

- (7) 화랑년 花娘女 <한영자전 154>

‘화냥’이라는 단어는 예문 (4ㄱ)의 <朴通事諺解>(1677)에 보이는 ‘화냥년’에서 처음 확인된다. 여기서서는 중국어의 ‘養漢’을 ‘화냥년’으로 풀고 있다. ‘화냥년’은 ‘화냥’에 ‘년’이 결합된 어형이다. 중국어 ‘養漢’이 ‘여자가 남자와 눈이 맞아 婚外 정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에 쓰인 ‘화냥년’은 정확히 ‘자기 남편 아닌 남자와 정을 통하는 계집’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화냥’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그런데 ‘화냥’ 단독으로 쓰인 용례가 많지 않아 그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2ㄱ)의 ‘養漢’에 대응된 ‘花娘’이 ‘화냥’의 어원을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라면 ‘화냥’에는 ‘서방질하는 여자’의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ㄷ)의 ‘화냥’은 이와는 다른 의미다. 여기서서는 ‘화냥’이 ‘國錄之臣’과 대응되어 ‘계집질하는 남자’ 정도로 해석된다. 양주동(1938)에서 ‘화냥년’에 대한 ‘화냥놈’이라는 단어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아도 ‘화냥’이 남자에게도 적용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집질하는 남자’라는 의미는 의미 적용 범위가 ‘남자’에게로 확대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의미이다.

한편 ‘화냥’은 (2ㄴ, ㄷ)에서 보듯 ‘자기 남편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것’ 즉 ‘서방질’이라는 行爲的 의미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이렇듯 여성과 관련된 행위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화냥’이 ‘계집질하는 남자’라는 實在的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아내 아닌 사람과 정을 통하는 것’ 즉 ‘계집질’이라는 행위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대국어 이후 ‘화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 ① 서방질하는 여자
서방질
- ② 계집질하는 남자
계집질⁸⁾

그러면 ‘화냥’의 이러한 의미와 중국어 ‘花娘’이 지니는 ‘妓生’이나 ‘娼婦’라는 의미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花娘’이 지니는 ‘妓生’ 또는 ‘娼婦’와 관련되는 ‘화냥’의 의미는 ‘서방질하는 여자’이다. 물론 이들 ‘妓生’ 또는 ‘娼婦’와 ‘서방질하는 여자’는 동질의 의미는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관한 의미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몸을 함부로 하는 여자’라는 共通的 成分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意味 領域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즉 중국어 ‘花娘’이 지니는 ‘妓生’ 또는 ‘娼婦’라는 의미가 의미 영역이 넓어 일반성을 띤다면, 우리말 ‘화냥’이 지니는 ‘서방질하는 계집’이라는 의미는 그에 비해 의미 영역이 좁아 특수성을 띤다. 이는 전형적인 의미의 특수화 현상이다. 이러한 의미의 특수화 현상은 의미 변화

7) ‘화냥’의 행위적 의미는 현대국어 ‘화냥기’, ‘화냥질’ 등에 보이는 ‘화냥’에서도 확인된다.
8) 물론 (5ㄴ)의 ‘優伶’에 대응된 ‘화랑’을 고려하면, ‘화냥’에 ‘優伶’ 즉 ‘연극배우’, 더 넓게 보면 ‘妓生’의 의미도 있었음을 추가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단어 借用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연스럽다. 이기문(1991 : 159)에서도 밝혔듯이 의미의 특수화는 언어 차용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⁹⁾

이렇듯 중국어 ‘花娘’과 우리말 ‘화냥’과의 의미 변화가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또 그 의미 변화가 단어 차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면 우리말 ‘화냥’이 중국어 ‘花娘’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화냥’의 어원이 ‘花娘’에 있을 가능성은, ‘養漢的’을 ‘花娘’에 대응한 예문(2ㄱ)이나 ‘花娘’을 ‘화냥이’에 대응한 예문(3ㄷ)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특히(2ㄱ)은 ‘화냥’이 ‘花娘’에서 온 것일 가능성을 한층 적극적으로 암시한다. 잘 알다시피 <譯語類解>(1690)의 체제는 중국어를 제시하고 그 아래에 우리말을 대응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르면 ‘養漢的’이 중국어가 되고 ‘花娘’은 우리말이 된다. ‘花娘’이 우리말이라면 ‘화냥’을 그렇게 적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마도 <譯語類解>(1690) 편찬자는 우리말 ‘화냥’이 ‘花娘’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냥’을 그 어원을 밝혀 ‘花娘’으로 적은 것인 듯하다. 이로써 ‘화냥’의 어원이 ‘花娘’에 있음이 뚜렷해진다.

아울러 ‘화냥’이 중국어 ‘花娘’과 유사한 발음인 것은, ‘화냥’이 중국어 ‘花娘’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한다. ‘花娘’에 대한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차용하여 [화냥]으로 읽은 것이다. 따라서 ‘화냥’은 이른바 白話系 漢字語에서 온 直接 借用語로 분류된다.¹⁰⁾

‘화냥’이 중국어 ‘花娘’에서 온 것임은 박재연(2003) 이전에 이미 한진건(1990 : 215)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에서 직접 차용된 것이 아니라, ‘花娘’이 ‘화랑’으로 발음되다가 나중에 ‘화냥’으로 변한 것으

9) ‘湯’을 지시하는 몽고어 ‘šülen’이 고려어에 차용되어 ‘슈라’로 어형을 바꾸고 ‘御膳’의 의미로 축소된 것도 그와 같은 예에 속한다.

10) ‘娘’의 전통적인 한자음이 [냥>냥]이었다는 점을 들어 ‘화냥’이 白話系 漢字語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娘’의 중국음 또한 [냥]과 거의 같은 음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해진다.

로 설명하고 있다. ‘화랑’이 ‘화냥’으로 변하는 과정은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설은 취하기 어렵다. 여기서 ‘花娘’을 ‘화랑’으로 읽은 것은 이를 ‘花娘’에 대한 間接 借用語로 인식한 결과이다.

실제 ‘花娘’은 ‘화냥’이나 ‘화랑’으로 간접 차용되기도 한다.¹¹⁾ 예문 (5ㄱ)에 보이는 ‘화냥’, (5ㄴ)에 보이는 ‘화랑’, (6)에 보이는 ‘화냥이’의 ‘화냥’, (7)에 보이는 ‘화랑년’의 ‘화랑’ 등이 韓國式 漢字音으로 읽힌 間接 借用語인 것이다. ‘화냥’과 ‘화랑’ 가운데에서는 ‘화냥’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접 차용어 ‘화냥’이나 ‘화랑’은 직접 차용어인 ‘화냥’에 비해 그 빈도가 높지 않으며, 또 조만간 이것에 밀려나 사라진다. ‘화냥’의 흔적은 현대국어 방언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화냥’의 견제력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화냥’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거나,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이 결합된 형태로 더 많이 쓰인 듯하다. 예문 (3)에서 보듯 對譯 語彙集에는 ‘화냥이’가 일반적이며, 실제 문장에서는 예문 (2ㄷ)이나 (4)에서처럼 ‘화냥년(화양년, 하냥년)’이 일반적이다. ‘화냥이’는 ‘서방질’이라는 行爲的 의미의 ‘화냥’에 그러한 성격의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를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도 있고, ‘서방질하는 여자’라는 實在的 의미의 ‘화냥’에 특정 성격의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른바 安定性 名詞化素 ‘-이’를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 (6)에서 보듯 간접 차용어인 ‘화냥’에도 ‘-이’가 결합되어 ‘화냥이’가 쓰인다.

아울러 ‘화냥년’도 ‘서방질’이라는 행위적 의미의 ‘화냥’에 그러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지시하기 위해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¹²⁾을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도 있고, ‘서방질하는 계집’이라는 실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화냥’에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년’을 덧붙인

11) ‘화냥’이나 ‘화랑’을 간접 차용어로 이해한 것은, ‘娘’에 대한 ‘냥’이나 ‘랑’이라는 한자음이 한국식 한자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2) ‘년’은 15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卑稱化된 ‘년’의 예는 16세기 자료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 처음 보인다. “풍뉴 호고 술 혀는 녀니니 드리고서 술과 풍뉴와 호고”<24>에 쓰인 ‘년’이 바로 그것이다.

어형일 수도 있다. (7)에서 보듯 간접 차용어 ‘화랑’에도 ‘년’이 결합되어 ‘화랑년’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근대국어 시기에 ‘화냥’과 관련된 단어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화냥 화냥이 화냥년
- ② 화냥(랑) 화냥(랑)이 화냥(랑)년

‘화냥’은 근대국어 후반 이후 예문 (4ㄴ), (4ㄷ)에서 보듯 ‘하냥’, ‘환양’ 등으로 變音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환향’으로 변음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 가운데 ‘환양’은 단순한 표기법의 문제로 돌릴 수 있는 반면, ‘환향’은 표기법 이상의 문제가 걸려 있다. ‘환향’은 아무래도 ‘환양’을 토대로 변형된 어형으로 볼 수 있는데, ‘환양’이 ‘환향’으로 바뀐 데에는 그럴듯한 민간어원적 聯想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환양’의 어원을 알지 못하는 터에 丙子胡亂 때에 瀋陽에 끌려갔다 몸을 망치고 돌아온 조선 여인네들을 생각하고 ‘환양’을 ‘還鄉’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에서는 오랫동안 ‘화냥’을 丙子胡亂 때에 瀋陽에 끌려갔다 贖還(돈이나 물건 따위로 대갚음을 하고 어떤 것을 도로 찾아옴.)의 돈을 치르고 조선으로 돌아온 여인네로 믿어 왔던 것이다.

‘丙子胡亂’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힘입어 ‘화냥’의 어원이 만주어 ‘hayan (음탕한 계집)’에 있다는 설도 꽤나 널리 퍼져 있었다. 조항범(1997, 2001)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편 바 있는데, 만주족이 丙子胡亂을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만주어 ‘hayan’이 ‘화냥’과 語形 및 意味가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만주어 ‘hayan’이 ‘화냥’으로 변한 음운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화냥’이라는 말이 丙子胡亂 이후부터 쓰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화냥’을 丙子胡亂을 겪은 뒤에 만주어에서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나 한다.

우리가 만약 <譯語類解>(1690)나 <同文類解>(1748) 등에 적시된 ‘花

娘'이라는 단어나, <華語類抄> 등에 보이는 '화냥'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눈여겨보았다라면 '화냥'의 어원을 좀 더 일찍,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 자료를 가볍게 여기고 그저 어형이나 의미에 집착하여 어원을 찾다보니 엉뚱한 어원 설을 만들어낸 것이다. 새삼 國語史를 기반으로 하는 어원 연구에 있어 문헌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 '화냥'과 관련된 단어는 대폭 줄어든다. 우선 간접 차용된 '화냥'과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화냥이'나 '화냥년'은 쓰이지 않는다. 직접 차용된 '화냥'을 이용한 단어 중에서도 '화냥이'가 쓰이지 않는다. '화냥' 자체 또한 잘 쓰이지 않는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 20세기 초에 간행된 <조선어사전>(1920)과 <조선어사전>(1938), 그리고 <큰사전>(1957)에는 '화냥년'만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

- (8) 가. 화냥년 : 娼婦の類 <조선어사전 958>(1920)
- 나. 화냥년 : 서방질하는 여자 <조선어사전 1991>(1938)
- 다. 화냥년 : 서방질을 하는 계집 <큰사전 3456>

아마도 간접 차용된 '화냥'이나 그 관련어인 '화냥이', '화냥년'은 직접 차용된 '화냥'이나 그 관련어인 '화냥이', '화냥년'에 밀려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접 차용된 '화냥'과 그 관련어인 '화냥이'는 '화냥'의 또 다른 관련어인 '화냥년'에 밀려나 그 세력이 약화되거나 아주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화냥'이나 '화냥이'가 '화냥년'과의 類義 競爭에서 불리했던 것은 '년'을 포함하는 '화냥년'에 비해 지시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의미 안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화냥년'이 '화냥'이나 '화냥이'에 비해 지시 의미가 구체적이어서 의미 안정도 높았기 때문에 유의 경쟁에서 우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시 의미의 안정성은 유의 경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현대국어 사전에는 '화냥'과 '화냥년'이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두 단어

를 동일한 의미로 다루고 있다. 이는 ‘화냥’이 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보았지만 근대국어 시기에 ‘화냥’이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의미 적용 범위 축소에 의한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냥’의 이러한 의미 변화는 의미 적용 범위 확대에 의한 의미 변화를 이은 두 번째의 변화이다. ‘화냥’은 의미 적용 범위 확대와 축소에 의한 의미 변화를 함께 겪은 특이한 차용어이다. 그러나 그 의미 변화의 시기 및 그 의미 변화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3

본고는 ‘화냥’의 어원을 중국어 ‘花娘’으로 보면서, ‘花娘’의 借用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근대국어 이후의 ‘화냥’의 지시 의미 및 그 의미 변화, 다른 요소와의 결합에 의한 형태 변개, ‘화냥’과 다른 관련 단어들과의 유의 경쟁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화냥’이라는 단어는 문헌상 17세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 ‘화냥’은 중국어 ‘花娘’에서 직접 차용된 단어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 ‘花娘’이 지니는 ‘妓生’이나 ‘娼婦’라는 의미와 국어 ‘화냥’이 지니는 ‘서방질하는 계집’이라는 의미가 일반적 의미 대 특수한 의미로 관련되어 그 의미 차이를 차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특수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중국어 ‘花娘’에 대한 中古音 [xwaniang]과 現代音 [huāniáng]이 국어 ‘화냥’의 발음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2. 근대국어의 ‘화냥’은 ‘서방질하는 계집’과 ‘서방질’, ‘계집질하는 남자’와 ‘계집질’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물론 ‘妓生’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냥’이 行爲的 의미와 實在的 의미를 함께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도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여자’와 ‘남자’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 특이하다. 물론 처음부터 ‘여자’와 ‘남자’에 모두 적용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자’에게만 적용되다가 나중에 ‘남자’에게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의미 적용 범위가 축소되어 ‘여자’에게만 적용된다. 의미 적용 범위 확대에 의한 의미 변화에 이어 의미 적용 범위 축소에 의한 의미 변화를 겪은 것이다.

3. ‘화냥’은 ‘하냥’, ‘환양’, ‘환향’ 등으로 變音되기도 한다. 특히 ‘환향’으로 변하면서 한자어 ‘還鄉’으로 오해되어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어원 설이 民間에 떠돌게 된다. 그러나 ‘환향’은 20세기 이후 바로 ‘화냥’으로 복귀하여 큰 혼란을 보이지 않는다. 본래의 借用 形態가 그 變音 形態를 극복한 특이한 예이다.

4. 중국어 ‘花娘’은 ‘화냥(랑)’으로 간접 차용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직접 차용어 ‘화냥’과 간접 차용어 ‘화냥(랑)’이 공존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직접 차용어 ‘화냥’의 세력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화냥(랑)’은 ‘화냥’에 밀려나 현대국어 이후 사라진다.

5. 직접 차용어 ‘화냥’과 간접 차용어 ‘화냥(랑)’은 접미사 ‘-이’ 및 여자를 낮추어 이르는 ‘년’이 결합되어 그 형태를 달리하기도 한다. ‘화냥이’, ‘화냥년’과 ‘화냥(랑)이’, ‘화냥(랑)년’이 함께 쓰이는 것이다. 이는 근대국어에서는 ‘화냥-화냥이-화냥년’ 계열과 ‘화냥(랑)-화냥(랑)이-화냥(랑)년’ 계열이 함께 대립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양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진다. ‘화냥(랑)-화냥(랑)이-화냥(랑)년’ 계열

이 ‘화냥-화냥이-화냥년’ 계열에 밀려나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화냥’이 ‘화냥’에 밀려나 소실됨으로써 ‘화냥’을 포함하는 ‘화냥(랑)이’, ‘화냥(랑)년’ 등도 자연스럽게 ‘화냥이’, ‘화냥년’에 밀려나 소실된 것이다. 물론 ‘화냥-화냥이-화냥년’ 계열에도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화냥’이 잘 쓰이지 않게 되고, ‘화냥이’는 아예 사라진다. 그리하여 지금은 ‘화냥년’만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화냥년’의 득세는 ‘년’의 지시 의미가 구체적이어서 의미 안정성을 누린 데 따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상, 박이정.
金亨奎(1962), 國語史研究, 一潮閣.
朴魯哲(1934), “활랑과 ‘화냥’의 語源,” 한글2권3호.
박재연(2003), 『中朝大辭典』 편찬에 관하여 : 필사본 번역고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호.
백문식(1998),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沈兼士(1976), 廣韻聲系, 大化出版社(臺灣).
심재기(1993), 고요한 아침 눈부신 햇살, 집문당.
梁柱東(1938), “語義攷 數則,” 정음27.
劉昌惇(1966), “女性語의 歷史的 考察,” 亞細亞女性研究5.
劉昌惇(1971), 語彙史 研究, 宣明文化史.
李基文(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李睟光(1634), 芝峰類說.
조항범(1997), 다시 쓴 우리말 어원 이야기, 한국문원.
조항범(2001), 선인들이 전해 준 어원 이야기, 태학사.
한진건(1990), 조선말의 어원을 찾아서, 연변인민출판사.
홍윤표(1994), “우리말 뿌리 찾기,” 살림64호.